**유엔 인에이블 뉴스레터**

2016년 6월-7월호

*안내: 유엔 인에이블 뉴스레터를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강수진님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주의: 단체번역물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유엔은 번역의 내용과 서비스, 기관 및 개인의 의견을 지지하거나 승인하지 않습니다. 유엔은 위 단체의 주장과 견해 및 번역의 정확도, 적법성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유엔 인에이블 뉴스레터는 사회정책개발국 경제사회부 장애인권리협약 사무국에서 발행하며, 유엔 사무국, 소속 기관, 기금 및 프로그램, 장애인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의 기여로 발간됩니다. 본 뉴스레터는 온라인 주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un.org/disabilities](http://www.un.org/disabilities)

**이 달의 소식:**

- 장애인권리협약 현황

- 유엔 본부 소식

- 유엔 산하기관 소식

- 국제 장애관련 행사 달력

- 기타 소식

**장애인권리협약(CRPD) 현황**

장애인권리협약(CRPD) **164**개국 비준/승인 및 **160**개국 서명

선택의정서(OP) **89**개국 비준/승인 및 **92**개국 서명

코모로 6월 16일 장애인권리협약(CRPD) 비준

네델란드 7월 13일 장애인권리협약(CRPD) 비준

**제 9차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COSP) 종료**

“범장애인을 위한 2030 개발 아젠다 이행: 아무도 배제하지 않는다(원제: Implementing the 2030 development agenda for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Leaving no one behind)”라는 주제로, 제 9차 장애인권리협약(CRPD) 당사국 회의(COSP9)가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었다. 160개국의 대표자들과 600명 이상의 NGO 대표들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유엔 총회의 의장인 모르겐스 리켄소프트(Morgens Lykkentoft)는 개최 회의에서, 장애인을 위한 2030 아젠다의 실천을 위해서는 회의의 발언들이 그저 구호로써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하려 노력하는 당사국들에 대한 UN의 지원 활동에 관한 당사국들의 상호 대화 시간에서, 경제개발사무차관 보좌관인 레니 몬티엘(Lenni Montiel)은 고등 인권 판무관,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 유엔 해비타트, 세계은행의 대표자들과 함께 경제사회부의 지지를 언급했다. 회의에서는 정부 기관과 유엔 조직 그리고 장애인 단체를 포함한 시민 사회 단체들의 주도로, 장애 이슈를 다루는 70개 이상의 부대 행사, 리셉션, 콘서트와 영화 상영회 등이 진행되었다. 제 10차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는 2017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개최될 것이다. 회의에 관련된 영상이나 발표문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bit.ly/crpdcosp9>

**장애인권리위원회 선거 결과**

제 9차 당사국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2016년 12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을 대신할 9명의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되었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18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선거 결과 다음의 새 위원들이 선출되었다: 아마드 말사이프(Ahmad Alsaif; 사우디 아라비아), 몬티안 분탄(Monthian Buntan; 태국), 이메드 에딘 차커(Imed Eddine Chaker; 튀니지), 준 이시카와(Jun Ishikawa; 일본), 사무엘 응주구나 카부(Samuel Njuguna Kabue; 케냐),라즐로 가보르 로바지(Laszlo Gabor Lovaszy; 헝가리), 로버트 조지 마틴(Robert George Martin; 뉴질랜드), 마틴 바부 음웨시그와(Martin Babu Mwesigwa; 우간다), 발레리 니키티취 루케레데브(Valery Nikitich Rukhledev; 러시아).

(<http://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Elections2016.aspx>)

**제 9차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 참가자 설문조사 참여 독려**

제 9차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에 참석했다면 다음의 간단한(5문항) 설문조사에 꼭 응답하기 바란다. 이 설문조사는 앞으로의 회의에 참석할 모든 사람들의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설문조사는 **2016년 7월 21일**에 종료된다.

(<http://www.surveymonkey.com/r/post-cosp9>)

**제 16차 장애인권리위원회 회의 개최**

제16차 장애인권리위원회 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2016년 8월 15일부터 9월 2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위원회는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이탈리아, 볼리비아, 아랍에미리츠, 우루과이의 1차 국가보고서를 검토할 것이다. 위원회는 또한 다음의 조항에 대해 작성한 과정을 고려할 예정이다. 고려할 조항의 초안들로는 제6조에 대한 권고사항 (장애가 있는 여성 및 소녀), 제24조의 권고사항 (장애 포괄적 교육을 받을 권리), 독립적인 모니터링 방안 가이드라인, 단순화된 보고 과정에 따른 기간제 보고서 작성의 가이드 라인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다음의 문서 들의 의견도 함께 고려될 것이다.

(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SessionDetails1.aspx?SessionID=1052&Lang=en)

**유엔 본부 소식**

**UN총회, 고위급회담(HLMDD) 후속 조치로 UN총회 의장 패널 회의 개최**

유엔 총회 의장(PGA)은 총회의 결과에 따라(69/142), 장애와 개발에 관한 유엔 총회의 고위급 회담에(HLMDD, 2013년 9월 23일)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개발 목표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목표들의 실현을 위한 후속 조치로, 패널 회의를 조직했다. 패널들은 국제, 국내, 지역사회 범위에서 인권-기반의 접근을 기조로 하여 장애인 개발 활동을 하는 현존 기관들의 업무 체계를 검토하고, 장애인을 위한 2030 아젠다의 실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조사했다. 다음 링크에서 회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http://bit.ly/unpga_13june2016>.

**장애계, 고위급정치포럼(HLPF) 개회식에서 주목을 끌다**

고위급정치포럼(HLPF)은 2016년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뉴욕의 UN본부에서 현재 진행중에 있다. 고위급정치포럼은2015년 9월 25일에 열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상 회담에서 도입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개발과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들을 위한 2030 아젠다의 후속 조치와 검토를 수행하는 국제 연합의 핵심 기구이다. 올해의 첫 행사로 고위급정치포럼은 2030 아젠다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들(SDGs)을 검토하고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각국 정부 기관들과 유엔 조직들 그리고 시민사회기관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고위급정치포럼의 개회식에는 시민사회의 지지를 처음으로 이끌어냈던 세계시각장애인협회의 호세 비에라(Jose Viera)를 포함한 다수의 장애 단체 인사들이 연사로 초청되었다. 세계농인연맹의 의장인 콜린 앨렌(Colin Allen)은 에티오피아에 있는 라이트 포 더 월드(Light for the World) 단체의 엣네버레쉬 니구시(Yetnebersh Nigussie)와 함께, 주요 단체들과 실무자들 간의 회의에 대해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고위급정치포럼의 시민 사회 단체 참가자들 간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다른 장애계 대표자들은 고위급정치포럼의 각 회의들에 참석해 접근성에 관한 이슈를 제기하고, 직접 토의에 참여하였으며, 폭넓은 시민사회단체 참가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2016년 고위급정치포럼 회의는 크로스커팅 이슈(범분야 이슈)를 포함한SDGs에 대한 22개국 대표들의 자발적인 논평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들(SDGs)에 대한 주제별 - 경제사회이사회의 기능별 위원회들을 비롯한 다른 정부간 협의체나 포럼에서 여러 차례 제기되었던 주제들도 포함해- 논평들도 함께 포함될 것이다. 고위급정치포럼은 파트너십 체결 행사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들(SDGs)의 교육, 훈련, 실천에 관한 회의들 같은, 여러 부대 행사들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http://bitly.com/HLPF2016>).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이 모임은 7월 18일 뉴욕의 포드 재단(Ford Foundation)에서 고위급정치포럼의 자발적 국가 논평에 기여한 장애인들의 공헌을 주제로 타운 홀 미팅 스타일의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http://bit.ly/29KxOyl>). 고위급정치포럼의 주요 회의들은 유엔 웹TV(<http://webtv.un.org>)를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되며, 차후에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할 것이다(대화창 작성 불가능). 고위급정치포럼에 참여한 장애인 단체들의 목록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bit.ly/29Gz2ab> #HLPF2016 #SDGs #LeaveNoOneBehind

**국제 네트워크(Global Network), 새도시아젠다(New Urban Agenda)의 초안 제시에 기여하다**

최근 설립된 ‘접근 가능하고 장애 포괄적인 도심 개발을 위한 비공식 국제 네트워크’는 다중이해관계자들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강화를 위해 구성되었다. 다중이해관계자들은 정책입안자, 도시개발과 장애 전문가, 학자, 장애인권옹호자, 개발협력 파트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네트워크는 새도시아젠다를 포함한 해비타트III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결집된 역량을 발휘하도록 할 것이다. 이 절차는 현재 협상 중에 있으며, 2016년 10월에 키토에서 개최될 해비타트III에 채택되기를 기대한다. 네트워크와 구성원들은 6월초에 이해관계자들간의 비공식 청문회와 유엔 해비타트 III의 회담에서 여러 조언과 제안을 제공했다. 초안은 두 가지 부분으로 분류되는데, (1) ‘모두를 위한 도시’ 키토 선언과; (2)키토에서 10월 17일에 열릴 해비타트 III를 위한 제3차 사전준비위원회 회의 에서(7월 25일부터 27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소개되기 전에, 뉴욕에서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비공식 정부간 회의”의 회원국들에 의해 협의중인 새도시아젠다를 위한 쿠이토 실행 계획, 이렇게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새도시아젠다는 지속 가능하고 장애 포괄적인 개발을 위해 앞으로 20년 동안 필요하게 될 세계 도시들의 노력들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할 것이다. 새도시아젠다의 초안은 6월 18일에 제 3차 정부간 협상 회의 전에 공개되었으며, 경제사회부가 작성한 주제 자료와 이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는 다음의 유엔 인에이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bit.ly/29OYpZk>.

**UN 사무총장, 중국에서 장애인권리협약+10을 기념하다**

UN사무총장은 7월 10일에 중국 정부의 국무원 장애정책운영위원회와 중국장애인연합에 의해 마련된 한 회의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행사는 장애인권리협약 채택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성명에서 사무총장은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28개 국가들에 협약에 참여한 165개 국가들을 따르라고 촉구했으며, “장애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사회와 개발 아젠다들를 촉진하는 구체적 실행방안”, “동등한 기회의 보장에 대한 필요성”, “장애인들이 개발, 시민, 문화활동 등 모든 측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직 더 많이 필요함을 호소했다. 사무총장은 “장애인은 지역사회, 국내, 국제적인 사고와 계획에 있어서, 특별히 그들만을 고려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 과정에도, 반드시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bit.ly/29OWgN0>)

**유엔 산하 기관 소식**

**유니세프-조기 아동 발달 설문 조사 실시 중**

세계장애아동파트너십(GPcwd) 산하 조기아동발달대책위원회(ECDTF)는 유니세프, 라이스(RISE)연구소와 함께 설문 조사를 실행하고 있다. 이 15분짜리 설문조사는 0세에서 8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발달지연, 장애, 문제행동을 보이는 장애포괄적인 조기아동기발달(ECD)와 조기아동기개입(ECI)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 만약 ECD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면, 이 소식을 파트너와 네트워크에 전달하면 된다. 설문조사는 8월 15일까지 실시한다.

 (<http://www.surveymonkey.com/r/ECDEnglish>)

**유엔지뢰폭발서비스(UNMAS)- 지뢰 폭발로 인한 피해자 지원에 관한 새로운 유엔 정책**

유엔지뢰폭발서비스(UNMAS)는 지뢰 폭발에 대한 기관간 협력 그룹에 포함된 유엔 산하 기관들은 5월 24일 새로 개정된 지뢰 폭발로 인한 피해자 원조에 관한 유엔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했다는 사실을 보고 했다. 이 정책은 지뢰와 전쟁 폭발물 잔해(ERW) 피해자들의 인권을 실현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확대시키기 위해 효율적이고 조직화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유엔의 원조를 향상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원조라 함은, 폭발로 인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트라우마를 줄이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 사회적 소외 혹은 그들의 권리 실현에 방해가 되는 문제들을 피해자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나이와 성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http://bit.ly/29KIV8M>)

**유엔여성기구- 장애인권위원회에 대한 성명서 발표**

유엔여성기구는 최근에 있었던 장애인권리위원회 선출 과정에서 2017년부터 부임하게 될 9명의 위원회 위원 후보로 세 명의 여성후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남성이 선출된 것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들은 장애인권리협약(CRPD) 34.4 조항에,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이사는 성별에 따른 균형이 적절히 잡히도록… 고려하여, 당사국들에 의한 선거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장애 여성이 직면하는 독특하고 교차하는 도전들을 인지하면서, 유엔여성기구는 새로운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여러 분야의 의견 반영과 장애 여성의 경험 적용이 줄어들지 모른다고 우려를 표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을 참조하면 된다. : <http://bit.ly/29Cym9p>.

**유엔여성기구-여성들이 더 나은 직업과 더 많은 수입을 가지고, 창업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의견 수집 중**

유엔 사무총장이 주재한 여성의 경제역량강화에 관한 고위급회담은 유엔 SDGs 활동 캠페인을 구성했다. 이 캠페인은 여성이 더 나은 직업을 갖는 것, 더 많은 수입, 창업하는 것과 관련해 여성의 경제역량강화를 위해 ‘ 나의 실행캠페인(MY ACTION CAMPAIGN)’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 설문조사는 여성들이 맞닥뜨리는 장벽에서부터 그들의 경제적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에 이르기까지, 여성과 직장의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집할 것이다. 설문결과는 올 9월에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급속화시킬 수 있는 추천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할 고위급회담의 회원들과 공유될 것이다.

(<http://bit.ly/29tCEk9>)

**유엔여성기구- 주력 보고서 작성을 위한 이동, 젠더, 가족 관계에 관한 논문 요청**

유엔여성기구는 인간의 이동성, 젠더, 가족 관계에 관한 지역적으로 다양하고 경험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연구를 찾고 있다. 선정된 논문들은 잔류 및 이주 여성이 인권을 향유하거나 제한하게 하는 공공정책과 다양한 종류의 개입을 확인하게 할 것이다. (<http://bit.ly/29CBod>)

**국제노동기구 – 구호에서 일터로**

제 9차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는 호주, 코스타리카, 핀란드, 스페인 소속 유엔 상임 공관들과 국제장애연맹(IDA), 유엔 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와 함께 “장애인들의 ‘평범하지 않은’ 고용: 구호에서 일터로(Unusual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words to work)”라는 제목으로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부대 행사를 조직했다. 참가한 패널들은 개발도상국에서 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우호적인 관심은 개발도상국의 장애인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비공식 경제형태인 창업만을 통해서라고 널리 알려진 통념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고용에는 여전히 무언가 “평범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고 있다. (<http://git.ly/28NDCVn>)

**국제노동기구 글로벌 비즈니스와 장애 네트워크 뉴스레터 창간**

다국적 기업들과 국가계획, 장애 네트워크(GBDN), 다국적 기업, 공기업과 장애네트워크, 국제 장애권리기구는 뉴스레터를 창간했다. 격월로 영어와 스페인어로 발행되는 이 뉴스레터는 장애 네트워크 회원들의 주요 업적을 세계 독자들에게 알리게 하고, 이로써 전세계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실시하는 장애인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독자들이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이 뉴스레터를 구독하기 위해서는 이메일 주소 다음의 링크에 적어 신청하면 된다. 영문 뉴스레터는 <http://bit.ly/298QIWk>에, 스페인어 뉴스레터는 <http://bit.ly/2901Da9>로 들어가면 된다.

**세계지적재산기구 – 캐나다의 마라케시조약 가입, 조약 발효**

전맹, 시각장애 혹은 독서 장애를 가진 사람의 출판물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마라케시조약에 호응한 중요한 20번째 국가로서, 캐나다는 2016년 9월 30일까지 3개월의 기간 동안 조약을 발효시킬 것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국장인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는 “이것은 시각장애인과 다각적 지적 재산권 체제에 아주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마라케시 조약이 전세계적으로 채택될 때, 이 조약은 전맹과 시각장애인들이 동등하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출판물을 즐길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캐나다의 가입은 에콰도르와 과테말라보다 하루 먼저 이루어졌다.

(<http://www.wipo.int/pressroom/en/articles/2016/article_0007.html>)

**세계은행 – 장애와 사회경제적 통합에 관한 뉴스 제공**

세계은행은 ‘사회, 도심, 지방, 회복을 위한 세계적 실천’을 통해서 개발 프로그램에서 장애 분야가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모인 파트너십을 공식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세계은행과 원스 재단(ONCE Foundation)은 교육, 고용, 기술 개발, 훈련, 유니버셜 디자인과 모두를 위한 접근성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 경제적 개발을 앞당기려는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또한 니뽄재단(Nippon Foundation) 과 함께 장애인의 고용 기회 창출을 포함한, 장애와 관련된 활동에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장애인의 정보통신기술 사용과 정보통신기술 분야 직업 훈련을 담당할 조직을 함께 운영하고, 장애 포괄적인 개발에 관한 지식, 방법,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장애포괄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한 산하 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제9차 장애권리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참가자들에게 다가오는 **장애 포괄과 책임성 프레임워크(Disability Inclusion and Accountability Framework)**를 알려주는 부대 행사를 주최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세계은행이 진행하는 사업이 장애주류화를 범용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이 정부가 장애포괄적 개발 프로그램과 장애인권리협약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다. 세계은행의 세계장애고문을 맡고 있는 샬롯 맥클레인-응라포(Charlotte McClain-Nhlapo)는 ‘장애인권리협약 실천에 관한 유엔 체제와의 대화:장애인권리협약 채택 10주년 기념” 장애통합과 세계은행의 두 가지 목적(극심한 빈곤 감소와 번영의 공유 확대)이 강한 연관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6월 22일 세계은행은 재난위기관리(DRM) 실무자들이 재난위기관리의 사회적 측면을 감지하도록 하기 위해 재난위기관리를 장애포괄적을 실현시키는 방안에 관한 온라인 세미나를 주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고령 사회 개발 전문가 마가렛 아놀드(Margaret Arnold)와 주최자이자 세계장애고문인 샬롯 맥클레인-응라포 (Charlotte McClain-Nhlapo)는 재난위기관리 진행과정에서 모든 커뮤니티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입 상의 요점에 관해 토의했고, 재난과 응급 상황에서 장애인의 욕구들에 대응하는 좋은 시범 사례들을 보여주었다. 30개국에서 1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이 온라인 회의에 등록했다.

세계은행의 교육 분과는 ‘사회, 도심, 지방, 회복을 위한 세계적 실천’과 함께, 장애 아동의 동등한 교육 기회와 양질의 교육 환경 보장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체제,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각국의 클라이언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세계은행 직원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장애 포괄적 교육**에 관한 일련의 지식 제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 인적 역량의 구축,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자원 재분배, 접근 가능한 교육 환경과 같은 광범위한 주제들을 관통하는 여러가지 정보들을 제공할 것이다. (<http://www.worldbank.org/en/topic/disability>)

**국제 장애 행사 달력**

본 목록에 주요 국제 장애 관련 행사를 추가하려면 enable@un.org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은 UN 인에이블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un.org/development/desa/disabilities/calendar.html>

**7월 11일 ~ 20일: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고위급 정치 포럼**

(<http://bitly.com/HLPF2016>)

**7월 25일 ~ 27일: 해비타트 III를 위한 사전 준비 위원회 3차 회의,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http://www.habitat3.org/the-new-urban-agenda/preparatory-committee>)

**8월 18일 ~ 25일: 세계시각장애인협회 제 9차 총회**

([www.worldblindunion.org/English/general-assembly/Pages/default.aspx](http://www.worldblindunion.org/English/general-assembly/Pages/default.aspx))

**9월 7일 ~ 18일: 2016 세계 장애인 올림픽,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http://www.paralympic.org/rio-2016>)

**9월 27일 ~ 29일: 제 2차 세계 지역사회중심 재활 대회, 에콰도르 쿠알라룸푸르**

(<http://www.2ndcbrworldcongress.com/>)

**10월 16일: 접근 가능하고 장애 포괄적인 도심 개발에 관한 DESA, DSPD 포럼, 에콰도르 키토**

([www.un.org/disabilities](http://www.un.org/disabilities))

**10월 17일 ~ 20일: 해비타트 III, 주거와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에 관한 UN 회의, 에콰도르 키토**

([www.habitat3.org](http://www.habitat3.org); Registration: <http://www.habitat3.org/node/532167>)

**10월 25일 ~ 27일: 제 23차 세계재활대회, 영국 에딘버그**

(<http://www.riglobal.org/save-the-date-ri-world-congress-2016>)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

(<http://bit.ly/undisabilityidpd>)

**2017**

**2017년 5월 22일 ~ 26일: UN국제전략기구(UNISDR) 재난 위험 경감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

(<http://www.unisdr.org/conferences/2017/globalplatform>)

**2017년 11월 8일 ~ 10일: 세계농인연맹의 제 3차 국제 회의, 헝가리 부다페스트**

(golob@congressline.hu, <http://wfdbudapest2017.com>)

**2017년 5월 24일 ~ 26일: UN국제전략기구(UNISDR) 재난 위험 경감과 장애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

(<http://www.unisdr.org/conferences/2017/globalplatform>)

**기타 소식**

(주의: 아래 내용은 기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유엔은 단체 혹은 개인이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와 주장하는 의견을 승인하거나 지지하지 않습니다. 유엔은 아래에 명시된 주장과 의견의 정확성, 적법성, 내용에 있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국제장애인연맹(DPI), 제 9차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 참가**

DPI의 호주, 도미니카 공화국, 에티오피아, 감비아, 인도, 레바논, 모로코, 니제르, 세네갈, 스리랑카, 토고 출신 회원들은 뉴욕에서 열린 제 9차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COSP9)에 회원국 자격으로 참가했다. DPI 부의장인 실바나 라키스(Sylvana Lakkis)는 전체토의 시간 중 델리선언을 강조하고, 세계와 지역 장애인 조직 간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DPI는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 장애인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들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과 함께, 지역과 국제 장애인 조직들의 체계적인 영향력 약화로 인한 충격에 대해서 강조했다. DPI는 제 9차 당사국 회의에서 여러 부대행사를 공동 후원했다. ([www.disabledpeoplesinternational.org](http://www.disabledpeoplesinternational.org))

**장애인권기금(DRF),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의 촉진을 위해 두 번째 후원금 모금 신청 발표**

장애인의 권리를 지지하는 세계의 장애 커뮤니티와 후원자들 사이에서 협력적인 후원 관계를 만들어 온 장애인권기금(DRF)은, “10의 범위에서 장애인권리협약: 개발에 대한 권리에 접근하기(CRPD at 10: Accessing the Right to Development)”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2016년 후원금 모금회를 발표했다. 이번 회기에 모금된 후원금의 사용은 방글라데시, 태평양 연안 도서국들, 르완다, 우간다에 있는 장애인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금의 가장 큰 목적은 사회 내 장애인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사용하는 개발도상국들에 있는 장애인 단체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함이다. 관심있는 단체들은 기금 홈페이지에서 전체 자격 요건들과 자세한 신청 사항들을 확인할 것을 요청한다. <http://www.diablityrightsfund.org/grantmaking> 또는 이메일: info@disabilityrightsfund.org

**인권 감시 블로그: 장애의 재정의에 대해서**

파라스 샤(Paras Shah)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장애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강력한 도전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낙인의 감각이다. 내가 지난 해 읽은 많은 인권 감시 단체들의 보고서에는 끊임없는 억지를 보이고 있었다: 장애인은 인간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 받고 보여진다.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태도들은 가치 없다고 느끼는 감정을 쉽게 내면화시키게 하고, 마치 우리 자신이 장애가 있는 것 느끼게 한다. 이것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당장 바뀌어야 한다. 장애인들은 우리의 자신의 가치를 반드시 확신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장애는 아름다운 것이다. 앞으로 전진하자, 나는 이런 차이를 기념할 계획이다.” 전체 글은 다음의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hrw.org/news/2016/06/29/redefining-disability>.

**인도의료윤리저널: 언어학적으로 차이점을 재조명하다**

인도의료윤리저널(IJME)은, 장애의 용어를 다르게 정의한 서로 다른 집단들은 결국 그에 따라서 장애인을 구분 짓는다고 주장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신체와 신체 기능 수준의 차이에 따라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 다양한 단어들과 구들이 다른 언어들에서 사용되었다. 비유와 은유들은 고정 관념을 형성하고, 이는 개인의 자아 개념의 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논문의 저자는 새로운 용어를 가공하는 것보다, 장애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장애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은 다음에 있다: <http://ijme.in/index.php/ijme/article/view/2376/4932>)

**조용한 움직임(Silent Move) 제작**

조용한 움직임(Silent Move)은 비주얼 아티스트 에이든 배리(Aideen Barry)와 웨스턴 케어 스케난 기술(Western Care’s Scannan Technologies) 리지풀(Ridgepool) 훈련 센터의 예술가들이 합작해 만든 영화이다. 이 프로젝트는 밸리나(Ballina)에서 8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발전하는 기술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 필름, 대본 개발과 퍼포먼스 기술. 아일랜드 춤 예술가이자 무용가인 에마 오켄(Emma O’Kane)은 에이든 배리(Aideen Barry) 곁에서 그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개발하기 위한 그룹으로 참여했다. 예술계를 선도하는 30명의 그룹 회원들의 재능들이 모여 이 환상적이고 감동적이며 익살스런 영화를 만들었다. (<http://irelandignite.ie/?cat=4>)

**세계농인연맹 – 전문가 그룹들**

세계농인연맹(WFD)는 2016년에서 2019년까지 다음의 분야에서 활동할 전문가 그룹의 회원들과 코디네이터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접근성(기술과 수화 통역), 농인 교육, 수어와 농인 연구, 인권. 세계농인연맹 전문가 그룹의 역할은 전문가 고문 집단으로써 세계농인연맹 이사진과 그 산하 위원회들, 세계농인연맹 청소년 부 이사진과 세계농인연맹 사무국을 위해 봉사하는 것과 2016-2019 세계농인연맹 행동 계획에 정의된 세계농인연맹의 목표를 실현시키는 데 공헌하는 것이다. 세계농인연맹 전문가 그룹의 목적은 세계농인연맹의 비전과 임무, 세계농인연맹 행동 계획, 세계농인연맹 총회 결정사항,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기타 유엔 조약 및2030 아젠다에 함께 하면서, 그들의 전문 영역에 관한 조언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http://wfdeaf.org/whoarewe/wfd-expert-groups>)

**연락처**

장애인권리협약 사무국(Secretariat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CRPD)

사회정책개발국(Division for Social Policy and Development; DSPD)

경제사회부(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DESA)

뉴욕 유엔 본부 S-2906, United Nations Headquarters, New York, NY 10017, USA.

**알자, 동참하자!**

페이스북: [www.facebook.com/pages/United-Nations-Enable/196545623691523](http://www.facebook.com/pages/United-Nations-Enable/196545623691523)

트위터: <http://twitter.com/UN_Enable>

홈페이지: [www.un.org/disabilities](http://www.un.org/disabilities)

이메일: enable@un.org

**유엔 인에이블 뉴스레터를 다른 언어로 번역해주실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유엔 인에이블 뉴스레터를 UN공식 채택 언어 혹은 자국어로 번역할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bit.ly/enablenewslettervolunteer>

**구독신청**: <http://bit.ly/unenablenewsletter>

**구독신청 취소**:

[http://esamail.un.org/u?id=%%memberidchar%%&o=%%outmail.messageid%%&n=T&e=%%emailaddr%%&I=enable\_news](http://esamail.un.org/u?id=%25%25memberidchar%25%25&o=%25%25outmail.messageid%25%25&n=T&e=%25%25emailaddr%25%25&I=enable_news)